

## 바리새인과 세리

**핵심 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누가복음 18:14**

**선별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8:9-14**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종교적인 계층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경건했고, 전통을 지키는 데 매우 엄격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들의 내면은 집단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기에,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흰 무덤 같으나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다고 추가로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27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비슷한 집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매우 까다롭고 꼼꼼하며 꼼꼼하지만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비록 타인보다 본성적으로 덜 타락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완전한 데는 한참 멀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 다 길을 잊었으며”(로마서 3:10-12).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보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한 더 죄 많은 사람을 더 동정과 긍휼로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심지어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10-12). 자기 의에 찬 바리새인은 여러 면에서 분명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만했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였다.

비유 속 다른 사람인 세리(세금 징수원)는 낮은 계층에 속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경멸받던 자였다. 그는 많은 약점과 죄악된 결점들을 지녔으나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되 하나님이며,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누가복음 18:13)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덮으심, 성령의 임태,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모든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너를 남과 달리하게 하였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자랑하느냐?"(고린도전서 4:7)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이 점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2:8-10